



집중 마크에



과감한 수비

28일 프랑스 생드니 경기장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이 멕시코 호세 안토니오(왼쪽)와 라파엘 마르킴즈(가운데), 파벨 파도(오른쪽)사이를 뚫고 드리블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스위스의 바젤세인트 아를프르크에서 열린 스위스와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에서 스위스 트랑킬로 바르네타가 코트디부아르의 막 조로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도 '구멍'은 있다 스위스도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프랑스축구대표팀이 중원에서 만든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프랑스는 28일 오전(한국시간) 파리 생드니 구장에서 열린 중남미 강호 멕시코와 평가전(1-0 승)에서 '중원 지휘자' 지네딘 지단(레알 마드리드)을 비롯해 플로랑 말루다(리옹), 클로드 마켈렐레(첼시), 파트리크 비에이라(유벤투스) 등이 미드필드를 장악하며 경기를 지배했다.

왼쪽부터 에릭 아비달(리옹)과 윌리엄 갈라스(첼시), 릴리앙 튀랑(유벤투스), 윌리 사를(바이에른 뮌헨)이 지킨 포백(4-back) 라인의 협력 수비도 견고함이 돋보였다.

하지만 비교적 나이가 많은 주전선수 체력 안배를 위해 후반 들어 미드필드와 수비진을 대폭 교체한 프랑스는 멕시코의 발빠른 공격에 종종 허점을 보이기도 했다.

▲ 지단의 중원, 여전히 견제

포백수비 한번에 뚫린 약점 노출 앙리없는 공격 위협적이지 못해

■ 멕시코전

이날 경기로 100번째 A매치 출장 기록을 달성한 지단은 수비의 집중 마크를 당했지만 '지휘자'로서 동료들을 이끌어 성공적으로 중원을 장악해냈다.

지단이 막히는 사이 말루다가 활발하게 왼쪽 측면을 공략하며 공격의 활로를 피했고 비에이라도 적극 공격에 가담해 중거리 슈팅을 날리는 등 위협적이었다.

▲ 앙리 빠진 공격진은 다소 무력 '공격의 핵' 티에리 앙리(아스날)가 빠지고 다비드 트레제게(유벤투스)와 지브릴 시세(리버풀)가 투입으로 나온 공격진은 다소 정교함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며 그다지 위

협적이지 못했다.

▲ 견고한 포백 수비 '약점은 있다' 프랑스의 포백 수비는 대체로 견고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도 보여졌다.

전반 33분 멕시코 파벨 파도(아메리카)가 왼쪽에서 올린 프리킥을 라파엘 마르케스(FC바르셀로나)가 골문 왼쪽에서 전혀 수비를 당하지 않고 머리에 맞춘 것. 볼은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지만 정확한 헤딩이었다면 멕시코로서는 선제골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앙수비 순발력·스피드 떨어져 윙백 공격성 강해 뒷문 열리기도

■ 코트디부아르전

한국의 독일 월드컵 본선 상대 스위스 축구대표팀이 최종 엔트리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전력을 드러냈다.

스위스는 28일 오전(한국시간) 자국 바젤세인트 아를프르크에서 치른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스위스는 주전들이 대거 출전한 전반과 A매치 경험이 적은 신예들을 줄줄이 교체 투입한 후반의 경기 내용이 확연히 달랐다. 주전급들이 대거 가동된 전반에는 위력적인 공격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베스트11, 윤곽 드러났다

스위스는 이날 사실상의 베스트 멤버를

선발로 내세웠다.

일단 4-4-2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투톱에 부상에서 복귀한 간판 골잡이 알렉산드르 프라이(스타드렌)와 장신 공격수 마르코 슈트렐러(195cm·퀵)가 짝을 이뤘다.

미드필드에는 좌·우에 트랑킬로 바르네타(바이엘 레버쿠젠)와 다니엘 기카스(빌)가 선발 출전했고, 중앙에서 리카르도 카바나스(퀵)와 요한 포겔(AC밀란)이 공·수를 조율했다. 이날 선제골을 터트린 바르네타는 왼쪽에 라파엘 비키(함부르크SV)가 오면 오른쪽으로 옮겨 서기도 한다. 포백라인은 왼쪽부터 루도비치 마그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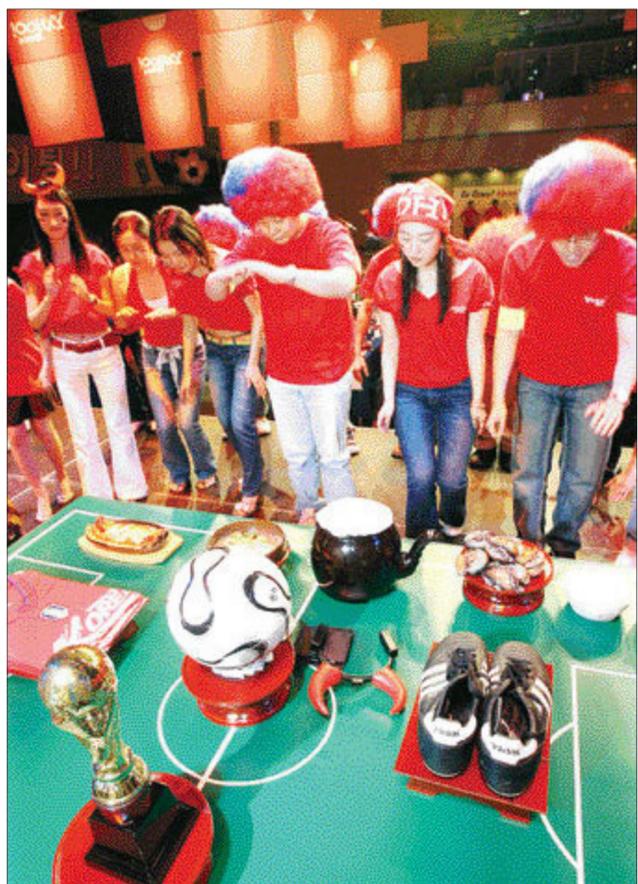
(슈투트가르트), 필리프 센데로스(아스날) 파트리크 뮐러(리옹), 발론 베라미(라치오)로 구성됐고 골문은 파스칼 주베르빌러(FC 바젤)가 지켰다. 오른쪽 윙백은 유럽에선에서는 필리프 데겐이 주전으로 활약했다.

▲2선 침투와 공간 패스 위협적이다 전반전에 보여준 스위스의 공격력은 매서웠다.

일단 특유의 유기적인 호흡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전진패스와 빠른 공격 전개가 일품이었다. 특히 2선 침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시급해 보인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넓은 시야도 돋보였다. 하지만 센데로스(190cm) 등 장신의 중앙 수비수가 순발력과 스피드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을 보였다.

공격 성향이 강한 윙백들이 적극 전방까지 치고 올라가 좌·우 측면에 공간도 많이 생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태극전사 선전을 기원합니다"

28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아후 코리아' 독일 월드컵 응원단 발대식에서 아후 거기겔스와 응원단 대표들이 선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아드보카트호 스코틀랜드 입성

"끝나지 않은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대망의 장도에 오른 아드보카트호가 '약속의 땅' 스코틀랜드에 입성했다.

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28일 새벽 6시(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공항에 도착했다.

27일 오후 1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백 명의 팬들이 열렬히 환송한 가운데 가슴 벅찬 환해를 시작한 23인의 태극전사들은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영국 런던까지 온 다음 브리티시항공편으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무려 16시간30분의 긴 여정 끝에 닿을 내렸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스코틀랜드 입성 일성으로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곳은 최적의 훈련 여건을 갖추고 있다. 내일 훈련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아드보카트호는 현지시간 28일에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강훈련에 돌입한다. 이날 공항에는 글래스고 현지 교민 30여 명이 마중나와 아드보카트호의 입성을 환영했다.

유학생들이 대부분인 교민들은 저마다 응원 호수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태극전사들이 하나둘 입국장을 빠져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올렸다.

태극전사들은 공항 환영 행사를 마친 뒤 집을 찾아 숙소인 글래스고 힐튼 호텔로 향해 곧바로 여장을 풀고 휴식에 들어갔다. 아드보카트호는 오는 31일 노르웨이 오슬로로 떠나 6월2일 새벽 2시 오슬로에서 '강호 킬러' 오슬러와 현지 1차 평가전을 갖는다.



독일월드컵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월드컵대표팀 선수들이 28일(한국시간) 오전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도착해 교민들과 유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훈련 최적지...최상의 성과 거두겠다"

■ 아드보카트 감독 인터뷰

"이 곳 스코틀랜드에서 최상의 훈련 성과를 올리겠다"

덕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약속의 땅'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입성하자마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28일 오전 6시(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공항에 도착한 뒤 첫 현지 인터뷰에서 "어제(26일) 국내에서 밤 늦게까지 경기를 하고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여정을 거쳤다. 매우 긴 하루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일(현지시간 28일)부터 곧바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훈련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긴 여행을 했는데 지금 선수들의 상태는 어떤가. ▲매우 긴 하루를 보냈다. 지금은 다들 조금이라도 빨리 잠들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스코틀랜드에 온 소감은 어떤가. ▲해 스코틀랜드에 왔느냐고 묻는지 의도를 모르겠다. 이곳은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최적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네덜란드와 독일에 비해 전혀 모자랄 게 없다. 지금 우리가 14일 정도 훈련을 하고면서

국내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고 왔는데 앞으로 노르웨이, 가나, 또 평가전이 기다리고 있다. 훈련은 평가전에 맞춰 해야 한다. -훈련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다. ▲내일 훈련부터 상당히 기대가 크다. 내일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하는데 오전에는 가볍게 회복 훈련을 하는 식으로만 하고 오후에는 좀 더 강도를 높여 훈련할 생각이다. -매일 두 번씩 훈련하는 강행군을 펼칠 계획인가. ▲선수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훈련 스케줄을 짤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훈련을 하면 될 것 같고 있다.